

필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10% 육박

8월 담배 판매 3억640만갑...전월비 0.3% 늘어 정부 "담뱃값 인상 전비 14.3% 줄어 효과유효"

전년도 대비 담배판매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10% 가까이 달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담배 판매량은 3억640만갑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90만갑) 증가했다. 필련 담배가 2억7790만갑, 필련형 전자담배가 2850만갑 팔렸다. 담배 판매량은 전월에도 1년전 같은 기간보다 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담뱃값 인상 효과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담배 가격을 올리기 전인 2014년 8월과 비교하면 8월 담배 판매량이 14.3%나 줄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1~8월 누적 판매량은 28억15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필련형 전자



담배는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이었다. 8월 점유율은 9.3%로 나타났다. 1~8월 점유율 역시 9.3%로 집계됐다. 한편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구

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8월 기준 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다만 1~8월 누계는 7조 6000억원으로 1.3% 늘었다.

뉴스스

국산 배 '신화·창조', 시장에 첫 선

농진청 "추석 출하로 일본 품종 '신고배' 대체 기대"

국산 배 품종 '신화와 창조'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시장에 처음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신화와 창조 품종이 각각 7.5, 3 출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배 재배 면적의 86.8%가 일본 품종 '신고 배'다. 신고 배의 출하 시기는 10월 상순이지만 올해처럼 추석이 9월 인 해에는 수확을 앞당기려고 생장조절제를 부여해 크기를 키운 뒤 출하해왔다.

이른 추석마다 크기만 키워 유통한 배의 상품성과 맛이 떨어지는 탓에 소비자들은 배 구입을 점차 꺼리게 됐고 이는 배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농진청이 개발한 배 신화와 창조는 신고 배보다 한 달 가량 빠른 9월 상·중순에 출하가 가능하다. 두 품종 모두 당도가 13브릭스 정도로 높고 맛도 뛰어나다.

품종명은 이른 추석에 유통할 수 있으면서 품질도 뛰어나 기존 배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신화'를 창조하자는 바람을 담아 지었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품종별로 보면 신화의 평균 무게는 630g다. 재배지인 나주를 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배 품종 '신화'(왼쪽)와 '창조'(오른쪽).

준으로 9월 5~10일께 수확된다. 상품성 있는 열매 생산 비율이 높고 상온에서 한 달(30일) 가량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저장력도 뛰어나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창조는 신화보다 큰 평균 700g 이상으로 9월 10~15일께 수확된다. 껍질이 얇아 깎아먹기 편하고 큰 열매를 선호하는 명절에 선물하기에도 좋다.

신화는 전국적으로 88.2ha(헥타르·1ha=1만㎡), 창조는 전남 나주와 해남에서 5ha 가량 재배되고 있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 학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산 배 신화와 창조가 일본 신고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년 후 유통 지역이 늘면 이른 추석에 선물용 시장의 주품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 총력

28일까지 소포우편물 337만개 예상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을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완벽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한 가운데 전 직원이 추석 배송작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소통기간 중 소포우편물은 지난 해보다 9.8% 증가한 337만개가 소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서

는 600여 명의 인력과 300여 대의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여 우편물이 적기에 소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소통으로 고객의 소중한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겠다"면서 "우체국은 9월 22일까지 배달을 실시하며, 추석 명절 이전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9월 20일 이전에 발송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는 (가칭)서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전용면적 59㎡, 84㎡의 중형 타입의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남구리는 지역적 가치에 단지 바로 옆 광주공원, 관리비절감

구에 위치, 남구의 명문 학군과 학원 등 교육 인프라를 누리기 쉽고 단지 바로 옆에 광주공원이 있어 최근 '공세권'으로 떠오르는 그린프리미엄까지 누리는 자리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

등 우수학군과 인접해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실거주자들의 선호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지 가까이 사직공원, 광주천변이 위치해 있으며,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태양광시스템에 대단지 혜택까지 갖춘 아파트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는 대단지에 태양광발전시스템까지 구축하여 관리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는 지상에 차가 없는 친환경 단지로 계획 중이다. 또한 대단지로서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와 각종 광장, 휴게실, 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휴식 공간이 있다.

○ 800만원대 합리적 가격대로 승부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 담당자는 '남구리는 기본적인 지역 프리미엄에 광주공원과 대성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였고 태양광발전까지 구축한 대단지 아파트인데도 3.3㎡당 800만원대의 합리적 가격대와 중도급 무이자 등 우수한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는 남구 진월동 구 유포아 웨딩홀 2층에 주택홍보관이 임시 개관중이다. 문의) 062-675-0100

남구 서동에 위치, 남구 지역적 프리미엄 편승
단지 바로 옆 광주공원으로 그린 프리미엄 기대

탁월한 태양광 설치, 합리적 가격대 등 탁월한 가치를 보유한 아파트이기에 시작부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남구의 가치에 광주공원 프리미엄이 더해진 자리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는 남

크는 입지 면에서 동서, 북구의 경계에 위치해 광주역과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이 편리해 도심 및 시외 어디로든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도보 통학거리에 대성초 무진중이 위치해 있으며, 광주제 일고 서광중, 수피아여고, 서석고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